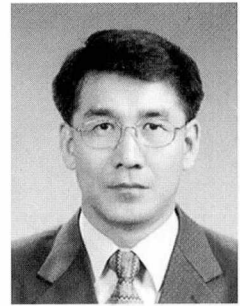


2008 신년사



회장 김 용 식
사단법인 한국윤활유공업협회

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08년에는 아무쪼록 회원사 여러분들의 번창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7년은 고유가와 환율하락 지속, 한미 FTA 타결, 한국증시 2000포인트 달성 등 주요 경제적 이슈 속에서 우리 모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난 해 협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2007년 12월 윤활유 폐비용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고, 폐윤활유 재활용 의무부과율 개선을 목적으로 폐윤활유 재활용 활성화 및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고려대학교에 연구 용역을 주어 4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폐윤활유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협회에서는 2008년 폐윤활유 재활용 의무부과율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008년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미국경기 둔화, 국제유가 상승, 미 달러화 약세 등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과 관련한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확실한 전망 속이지만, 협회는 윤활유 업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폐윤활유 재활용 의무부과율 개선, GHS 및 REACH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 협회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들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 드립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의 가속으로 화학물질의 사용 및 취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재난의 위험성 및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7월 1일부터 GHS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GHS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을 일컫는 말로, 1989년 ILO 총회 시 인도에서 제안하여 1990년 ILO 화학물질회의에서 채택된 제도입니다. 이후 1992년 리우의 UN환경개발 회의(UNCED)에서 GHS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후 UN 관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2002년 9월 UN은 지속가능개발세계정상회의에서 2008년까지 OECD 가입국가에 대하여 GHS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2006년 12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고시하였습니다. GHS 도입으로 인하여 위험물 분류·표지의 국제적 통일화로 무역 및 기술장벽 제거 등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행정제도를 개선하며, 부처간 연계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일관되고 적절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입에 따른 비용이 발생됨으로 우리 유통유업계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GHS 도입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 또 다른 현안과제 중 하나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REACH 제도에 대한 최신동향 및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REACH란 신화학물질관리법으로 EU의 새로운 환경규제 제도 중의 하나로서 EU에서 EU지역에 제조·수입되는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등록, 평가 및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화학업계는 물론 화학물질을 포함한 완제품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EU에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REACH 제도의 핵심인 등록과 허가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내용검토를 통하여 유통유업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며, 협회사 회원분들에게도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2008년 현안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협회는 회원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유통유업계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8년 한 해도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회원사 여러분들의 변창을 기원합니다.